

1. 대중 여성잡지와 젠더 정치학
2. 자유 민주주의 이념과 ‘제도로서의 주부’
3. 여성 젠더의 내적원리
 - 3-1. 전인교육의 담당자가 된 위대한 모성
 - 3-2. ‘능부’와 섹슈얼리티의 재현자로서 양처
 - 3-3. 가정의 신성화(domesticity)와 배타적 위계화
4. 결론

국문요약

이 글은 1950년대 대중 여성잡지 『여원』을 중심으로 ‘제도로서의 주부’의 형성과정과 그 이데올로기로서 작동되는 현모양처 이념의 의미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50년대 현모양처 이념이 자유 민주주의의 이념에 따라 새롭게 구성되고, 해체된 가족을 재편성하고 젠더 관계를 재구축하고 재생산하고 있음을 고찰할 수 있었다. 즉 현모양처 이념을 작동시키는 내적 원리 중에 하나인 모성 담론은 사적 영역에 기초한 ‘제도로서의 주부’의 탄생과 함께 지·덕·체를 겸비한 ‘위대한 모성’을 구성하고 있다. 내적 원리 중에 또다른 하나인 양처론에서는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지적이면서도 합리적인 가정 관리자, 성적 쾌락의 대상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능부’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으로 50년대 여성잡지 『여원』은 현모양처 이념에 귀속되지 않는 부류들을 배타적으

*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로 위계화하면서, 주부 담론을 공고화하였다. 이에 따라 가정의 신성화를 수립하면서 여성의 자율적 권한을 확장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주부 담론은 5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관습과 통제를 받기 시작한다. 이러한 관습과 통제는 사적 영역에서 여성의 자율적 권한을 점차 협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50년대 주부 담론은 여성의 자율권을 확장시켰으며 여성을 감성의 영역으로 한정하거나 남성의 보조자 역할로 축소시키지 않았다는 데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주제어

여성잡지, 『여원』, 제도로서의 주부, 현모양처, 모성, 양처, 사적 영역

1. 대중 여성잡지와 젠더 정치학

한국에서 여성 대중을 독자로 한 여성잡지는 1906년 6월 『가정잡지』¹⁾를 필두로 발간되기 시작한다. 이후 여성잡지는 ‘여성’이라는 제한적 독자대중을 상징하고 편집·유통되면서 여성을 근대적으로 계몽하는 종합 교양지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여성잡지가 한국 사회에서 권위 있는 매스 미디어로 자리 잡지 못하고 마이너리티로 존재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성의 이미지나 여성의 아이덴티티를 문화적으로 반영하고 여성이라는 젠더적 담론을 구성하여 소망스러운 여성성을 욕망함과 동시에 주체화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즉 여성잡지는 어느 사회화 과정보다도 강력하게 여성성의 젠더 담론 구성과

1) 『가정잡지』는 상동청년회 기관지 형식으로, 1906년 6월에 창간된 한국 최초의 여성잡지이다. 초기에는 유일선, 후에는 신채호가 편집인이 되어 1908년 3월까지 총 10호가 발행된다.

그것의 주체화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런데 여성 잡지는 대부분 전통적인 여성상을 바람직한 여성상이라고 왜곡하는 황색 저널리즘이라고 비판받기도 하는데²⁾ 이는 역설적으로 여성잡지가 표상하는 문화나 문화적 욕망이 여성의 의식과 인식에 잠재적이지만 강력한 효과와 파급력을 지니고 있음을 반증하는 사례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여성잡지는 객관적 실체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 상징체로서 필자와 매체 그리고 독자가 상호 소통하는 살아있는 문화적 텍스트라 할 수 있다. 즉 여성들은 여성잡지를 통해 새롭게 자기를 규정하고 새로운 정보와 전문적인 지식을 획득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주체가 되기도 하고, 그것에 의해 규정받는 타자가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여성잡지를 분석한다는 것은 여성 담론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소통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거점이 된다.

1950년대 여성잡지는 주로 여성 지식인층을 구독대상으로 삼았지만 점차적으로 성별이나 계층, 지역까지 초월하는 양상을 띠게 된다.³⁾ 더욱이 50년대는 전쟁의 여진이 아직 가시지 않은 폐허 속에서 많은 수의 남성들이 사망하거나 실종되고 또는 부상을 당하여 사회를 유지시키는 인력의 공백이 초래되었으며, 그 사회적 빈 공간에 여성이 떠밀려 들어와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한 시기이다. 이처럼 여성의 역할이 급격히

2) G. Tuchman, "Women's depictions by the Mass Media", in *Sign*, 4(3), 1979, p. 530. 김선남, 「여성잡지에 대한 수용자의 의식 연구」, 『출판학연구』 제41호, 1999.12, 169쪽에서 재인용.

3) 1956년 1월 남녀 대학생 설문조사에 의하면, 여자 대학생은 『여원』, 『사상계』, 『현대문학』 순으로, 남자 대학생은 『현대문학』, 『사상계』, 『여원』 순으로 잡지를 읽고 있음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여원』은 독자 수거나 편집자에게 보내는 글을 보면, 남성, 외국으로 이민 간 여성, 하층 계층의 여성의 글이 종종 소개되고 동경 판매처까지 확보하고 있을 정도로, 성, 계층, 지역을 초월하여 광범위한 독자대중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 글에서 『여원』 인용 시, 세세한 서지가 불필요할 경우는 연월만을 명기한다.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원』은 주로 ‘새로운 여성상’, ‘새로운 주부’, ‘새로운 어머니’, ‘새로운 현모양처’ 등을 기사화하였으며 이들 기사들은 광범위한 독자 대중과 소통하면서 여성성을 재규정하고 재생산하였다. 물론 이들 기사들은 잡지 편집인의 기획에 따라 게재된 것이지만, 여성잡지가 역사적 변혁기에 여성의 욕구를 표출하고 여성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주요한 소통의 장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50년대 여성잡지 『여원』⁴⁾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부’가 어떠한 사회·역사적 맥락에서 어떻게 ‘새롭게’ 규정되고 구성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⁵⁾ 50년대 주부 담론을 살펴보는 데에는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발간된 여성잡지의 대명사격인 『여원』이 가장 적합한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여원』은 55년 10월부터 발간되면서, “여대생에서 가정주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성 여성들의 필수품”이 되었고, 창간 3년 만에 4만부라는 경이로운 발행부수를 기록할 정도로 여성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독자 대중과 소통이 활발했던 잡지였다.⁶⁾ 게다가 『여

원』은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에 의해 의미를 생성하는 대중적인 문화 텍스트였다.⁷⁾ 『여원』은 동시대의 여성잡지와 상호 의존적으로 의미가 교차되면서 담론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과 필자군(群)의 유사성도 이를 입증하는 증거이다. 따라서 『여원』만 다루어도 여타의 여성잡지에서 소통되는 주부 담론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1950년대 여성잡지 『여원』에서 구성하는 주부 담론 구성의 내적 논리를 밝힘으로써 50년대 젠더 정치학을 생생하게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젠더화된 재현 체계가 어떠한 위계화 과정을 거쳐 구성되고 있는지 그것이 어떻게 정당화되고 재생산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은폐되는지를 고찰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2. 자유 민주주의 이념과 ‘제도로서의 주부’

해방 후 ‘주부’는 서구 부르주아적 가정을 욕망하는 기제이며, 동시에 여성들이 자기를 새롭게 규정하는 주체적인 아이덴티티의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새로운 현상이다. 물론 주부란 용어는 한국 최초의 여성 잡지인 『가정잡지』에서도, 20, 30년대 『신가정』, 『여성』 등에서도 사용되었다. 이때 ‘주부’라는 용어는 때로는 남편의 보필적 위치로, 때로는 자식의 보호자로, 때로는 총후부인으로 호명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공적 영역인 ‘국가’ 이념에서만 호명되었다. 그러나 50년대 전후에는 개인/국가, 가족/개인의 정체성 문제가 자유 민주주의의 실현과 맞물리면서 새롭게 구상되는 가운데, ‘주부’라는 집단은 사적 영역의 주체로 구성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해방 후 수립된 국가 체계는 자유 민주주의의 이념을 기조로 하여 한

4) 1950년대 대표적인 여성잡지는 『여성계』(1952년 창간), 『새가정』(1954년 1월 창간), 『가정』(1954년 12월 창간), 『여원』(1955년 10월 창간) 등이다. 『여원』은 55년 10월부터 70년 4월까지 총 175호를 발간되었는데, 창간 초기에는 학원사에서 간행했으며 발행인은 김익달, 주간은 김명엽이었다. 56년 부사장이자 주간인 김명엽이 여원사를 차려 잡지명을 그대로 계승하여 속간하였다. 이후 74년에 복간되어 95년까지 지속적으로 발간되면서, 젠더를 규정하고 재생산하는 텍스트로서 지속적인 의미를 지닌다.

5) 자유당 시대는 미국의 경제원조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가 극심하였다. 이에 4·19 이후 1960년 8월 23일 제2공화국 들어선 장면 내각이 ‘경제재건제일주의’를 내걸었으나 미국의 극동전략 때문에 실효를 거둘 수는 없었다. 山本剛士, 「1·2차 경제개발계획과 고도성장의 문제점」, 『1960년대』, 거름, 1984, 271-275쪽. 그러나 박정희의 경제제일주의적 정책과 그 기조가 유사하기에, 본고는 장면 내각이 수립되기 전까지를 50년대라는 역사적 범주에 넣었다.

6) 김시철, 『격랑과 낭만, ‘당시의 잡지계: 몇몇 잡지사와 문인들’』, 청아출판사, 1999, 더욱이 현재 1950년대 여성잡지 중 현재 전권을 파악할 수 있는 잡지도 『여원』 뿐이다.

7) 김현주, 「1970년대 대중소설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8, 16쪽.

편으로 미국의 원조를 토대로 한 국가 재건 프로젝트가 가동되면서도⁸⁾,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 제국주의의 산물을 쇠신하는 가운데 수립된다. 근대 이후 한국사회에서 미국에 대한 열망은 줄곧 근대화의 모델이었으며, 선망의 대상이었지만,⁹⁾ 그것의 본격적인 수용과 실험은 45년 해방이후라 할 수 있다.¹⁰⁾ 그 결과 한국에서 자유 민주주의 이념은 해방자로서 미국의 이상과 체제를 모방하면서 수립된다.¹¹⁾ 예컨대 우리 영화가 개인 생활에 모험도 없고 단순한 데 비해 미국이나 구미 영화는 현대생활을 진지하게 묘사하는데 신선한 매력이 있고 기이한 생활풍속이 외화 팬을 황홀케 한다는 정충량의 글에서 알 수 있듯이,¹²⁾ 미국문화는 전쟁 후 경제적 궁핍 속에서 황홀한 문명이며 새로운 타자이자, 우방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자연스럽게 한국인의 의식 속에 긍정적으로 수용된다.

한국이라는 독립국가의 인식적 지도그리기를 위한 담론들은 서구, 특히 미국 문화가 모방해야 할 완결적 이상태로서 작용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미국 문화를 그대로 차용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전통문화나 기존의 제도와 길항 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착종하게 된다. 즉 그들의

문화나 제도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에 대해서는 부정하면서 동시에 국가 재건에 유용한 근대적인 제도를 수용하려고 노력한다. 50년대 주부 담론은 이러한 국가 재건의 기획과 맞물려 소통되기 시작한다.

근대 초기는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 미분화된 사회였으므로, 주부의 위치는 늘 불안정한 상태였다. 그런데 50년대 사적 영역이 공적 영역과 급속하게 분리되면서 사적 영역의 담당자 즉 ‘제도로서의 주부’¹³⁾가 탄생하게 된다.

제도로서의 주부의 탄생은 전쟁이 끝난 후 남성들이 사회와 가족으로 복귀하자, 가부장적 젠더 관계가 재질서화되면서 진행된다. “국가는 가정의 확대이고, 민족은 가정의 연장”¹⁴⁾이라는 언술에서 보듯, 국가 재건의 기초가 가정 재건이 된다. 따라서 『여원』의 주부 담론은 전쟁으로 인해 가족이 해체된 가운데 가족을 재건하고 가치관을 재편성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전면화된다. 즉 이 시기에 호명된 주부는 가족을 재편성해야 하는 국가 재건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다.

전쟁으로 인해 남성들이 대규모로 동원되면서 남성과 비교해서 여성의 경제 활동률이 50%에 육박할 정도였고,¹⁵⁾ “오늘에서 부의 창조자”이며 “생산적 담당자”라고까지 지칭될 정도로,¹⁶⁾ 50년대는 여성들의 경제 활동이 활발했던 시기였다. 전쟁터에 나간 남성을 대신하여 여성들은 가족의 생계까지 책임지는 가정의 역할을 떠안게 되면서 가족 구성원으로서가 아닌 여성 개인으로 사회로부터 인정받게 된다. 이러한 활동을

8) “1958년까지도 원조가 우리나라 재정의 세입에서 조세수입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을 국가 경제는 원조 공영에 기초한다 할 수 있다. 박태원, 「한국 조세정책 50년/제1권 조세정책의 평가/제1편 시대별 조세정책/제1장 국가 및 경제재건시대의 조세정책(광복 이후 1950년대까지)」, 『한국의 조세정책』 1권, 1997, 37쪽.

9) 김덕호, 「해방이후 한국사회의 미국화와 탈미국화 : 해방 이후 한국에서의 소비와 미국화 문제」, 『미국학논집』 제37권 3호, 2005, 157쪽.

10) 강정인, 「민주주의의 한국적 수용 : 서구중심주의에 비쳐진 한국의 민주화」, 『한국정치학회보』 제34권 2호, 2000, 70-77쪽. 특히 1930년대 한국과 일본에서 진행되었던 근대초극론은 동양을 세계의 주류를 만들고자하는 담론으로, 미국을 포함한 서양을 극복하는 것이 과제였다.

11) 김병익, 「진보주의의 문학적 전개 양상」, 『사상과 정책』 제3권 3호, 1986, 173쪽.

12) 정충량, 「왜 현대인은 영화에 매혹되나」, 『여원』 1956.4, 196-201쪽.

13) 김복순은 제도로서의 주부가 등장한 것은 아니지만, 근대초기 주부 담론에서 요구되었다고 주장한다. 김복순, 「근대초기 모성담론의 형성과 젠더화 전략」,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4집, 2007.6, 29쪽.

14) 서중석, 「일민주의와 파시즘」, 『이승만의 정치이데올로기』, 역사비평사, 2005, 90쪽.

15) 이임하, 「한국전쟁과 여성노동의 확대」, 『한국사학보』 14권, 2003, 251-260쪽.

16) 백경훈, 「경제적 관념의 빈곤성」, 『여원』 1960, 6, 91쪽.

토대로 이들은 가계의 책임자이며 가정의 주관자로 등장한다.

그러나 사회에 진출했던 여성들에게 “전후의 실업난 속에서 사회는 우선적으로 남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려 하며 그래서 여성들을 생산영역이 아닌 가정이라는 재생산 영역으로 귀환시키고자 한다.”¹⁷⁾는 귀환의 목소리가 「여성을 가정에 안착시켜라」(57.3)라는 단호한 메시지로 나타난다. 이 목소리는 전쟁으로부터 귀환한 남성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여성들 자신의 선택이라기보다는 강제적 선택을 강요해 여성을 가정으로 불러들이려는 사회적 상황과 관련이 있다.¹⁸⁾ 이 과정에서 가족은 국가/가족의 위계화를 통해 남성/여성의 성별 위계화로 재편되고, 주부 담론은 성적 영역을 분할하고 그것의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게 된다. 예컨대 “겸손하고 남편과 협력하고 남편이 죽은 뒤에는 좋은 어머니로서 연구에 바친 쿼리 부인, 남편 뒤에 숨어 있다가 남편이 죽은 뒤 눈부시게 활동한 루즈벨트 부인들이 새로운 의미의 여걸”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런 ‘자유로운 개인’은 예외적인 걸물이지 모든 여성들이 본떠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¹⁹⁾ 전쟁으로 인해 남성이 부재한 가정에서만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허용될 뿐이었다.

이때 『여원』에는 당시 외래풍조에 젖어 있는 여성들에 관한 기사가 자주 거론되면서, 그 원인으로 가치관의 혼란이 제기되고, 계몽의 모델로 ‘현모양처’ 이념이 제시된다. 이 현모양처 이념이 계몽의 이데올로기로 동원되면서 제도로서의 주부는 비로소 의미화된다. 현모양처 이념은

17) 김소영, 『근대성의 유령들』, 씨앗을 뿌리는 사람, 2000, 143쪽.

18) 전쟁터에서 돌아온 남성들에게 보장된 일자리와 안정적 가정이라는 보상을 기대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 여성들은 자발적으로 가정으로 귀환했으나, 그렇지 않은 여성은 직장생활을 지속했으나, 정부와 기업, 그리고 여성잡지가 선전한 가정 이데올로기가 강화되면서 강제적으로 귀환하게 된다. 매릴린 엘름, 이호영 옮김, 『순종 혹은 반항의 역사 아내』, 시공사, 2003, 576-582쪽.

19) 조용만, 「여걸, 여장부, 여사를 해부한다」, 『여원』 1958.4. 87-90쪽.

주부라는 아이덴티티를 구성하는 원리와 지향점으로 기능하며, 우리네에게 고유한 전통적인 것으로 재창조된다. 즉, 새롭게 구성된 현모양처 이념이 ‘제도로서의 주부’의 원동력으로 작동된다.²⁰⁾ 이에 따라 외국영화나 외국문화 수용에는 적극적이면서도, 댄스홀에 다니거나 계를 하는 여성은 몰지각한 여성으로 비판하거나 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여성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는 수사법을 취한다. 이러한 담론 구성 방식은 가부장제의 규율권력 방식으로서, 남녀 간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각인시키고 여성을 남성에게 종속시키는 기능을 담당한다.

그런데 50년대 중반 이후 『여원』에서 호명되고 있는 주부는 서구식 스위트 홈인 서구의 부르주아 핵가족을 규범으로 삼고 있지만,²¹⁾ 이 시기는 남편의 수입만으로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전업주부 집단이 대규모로 형성된 시기는 아니었다. 주부 담론은 남성들의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 여성들을 가정으로 귀환시키려는 국가 사회적 담론에 의해서 기획되었지만, 실제로 이 시기 여성들은 가정에만 안주할 정도로 행복한 물질적 토대를 소유하고 있지 못했다. 따라서 주부 담론이 확산되면서, 안정적인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 여성 경제활동인구는 현저히 급감하는 대신 생계를 책임져야 할 여성들의 경제 활동인구는 증가하게 된다.²²⁾ 『여

20) 30년대 제기된 현모양처 이데올로기는 일본의 제국주의의 지배원리와 착종된다. 일본의 경우 메이지 유신이후 혈통의 ‘家’ 대신 ‘國家’를 강조하고, 가정을 국가의 기초로 자리매김하는 맥락에서 현모양처 이데올로기가 발명되어 동원된다. 김수진, 「1920-30년대 신여성담론과 상징의 구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8. 67-72쪽.

21) 58년 1월 <독자의 편지>를 보면, 「夜來香」을 연재하고 있는 정비석에게 독자가 주인공이 연애에서 결혼에 골인하여 스위트·홈을 이룩하기를 소망하는 대목이 있다. 이처럼 스위트 홈은 1900년대부터 국가로 호명된 국민들의 소망이었지만, 그것의 실현 가능성은 1950년대부터 보이기 시작한다.

22) 안정적인 직업이었던 공무자유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는 1952년 188,625명에서 1958년 70,937명으로 감소하였으나, 5인 이상 기업체에 종사하는 인원수도

원』에 다양한 여성의 직업이 소개되고 그에 따른 품성 개선이나 교양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글들이 자주 실리는 것도 이러한 현실적 이유에서이다.²³⁾ 이러한 실례에서도 증명되듯, 50년대는 국가/개인, 남성/여성의 위계화를 통해 가부장제적 젠더 질서로 재편되어 가는 시기였으며, 주부 담론은 이에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

박종화가 20, 30년대 신여성들과 달리, 해방 이후 여성들의 지위는 경제력과 교육 정도 등 남성의 지위를 위협할 정도라고 우려하면서, 동양과 서양의 가치가 절충되는 인간상으로 “새로운 현모양처형”을 제시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²⁴⁾ 이 ‘새로운’ 현모양처 이념은 여성 교육의 지도 이념으로 자리매김되는데, 전국 여자중·고등학교 교장회의에서 “시대에 맞는 민주주의적 현모양처의 교육방안이 진지하게 검토되”²⁵⁾고, 대학의 여성교육 역시 현모양처 이념을 목표로 삼는다.²⁶⁾ 현모양처 이념이 여성을 젠더화된 몸으로 만드는 미시권력으로서 가부장제의 규율권력을 재생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50년대 주부 담론은 현모양처 이념을 그 내적원리로 가부장제의 미시권력으로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자녀의 인격 형성과 입신양명을 지향하는 교육방식은 현모의 성향으로 인식하고, 신사임당 등 한국의 역사적 전통으로부터 어머니를 호명하는 방식으로 어머니

상을 각인시켜간다. 또한 자유경쟁을 지향하는 입시경쟁에서 자식을 승자로 키우기 위한 현모의 교육방식은 서구의 근대적 가족모델로부터 호명되는 방식으로 어머니의 교육방식을 구성해 간다. 반면에 에티켓 등 합리적으로 가정 관리를 할 수 있을 근대적 교양을 지닌 여성을 양치상으로 각인시켜간다. 이러한 내적 원리가 가동되면서 여성이라면 누구나 어머니가 되고 양육도 책임져야 하고 남편도 보필해야 한다는 현모이념의 이념이 자연스럽게 ‘주부’의 상으로 수렴되고, 다른 한편으로 “완고한 구식 시어머니를 미국식 부인으로 개조해 가는 노력”²⁷⁾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식 가정의 주부를 모델로 하여 가족을 재편한다. 이처럼 가부장적 젠더관계의 재질서화와 부르주아적 가정을 동경하는 가운데 파생된 주부 담론은 여성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담론으로 전경화된다. 즉 50년대 주부는 사적 영역의 담당자로 재편된 것이지만, 단순히 계몽의 대상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주부로서 확인하고 그 정체성을 구성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훈육하는 주체로 정립해나가는 자율적인 존재로 드러난다.²⁸⁾ 이러한 변화에 따라 대중매체도 주부의 실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식이나 정보를 교환하는 장소로 탈바꿈한다.²⁹⁾ 그런 의미에서 50년대는 구체적인 의미에서 자율적인 권한을 가진 ‘주부의 탄생’ 시기이며 가족 제도에서 ‘주부’를 사적 영역의 ‘제도로’ 정착시키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절대수가 감소하였다. 대신 5인 미만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이나 상업, 식모 등 일용노동자의 수는 증가하였다. 이임하, 「한국전쟁과 여성노동의 확대, 『한국사학보』 14권, 2003, 257쪽.

23) 「당신의 꿈을 찬란히 꽃피우기 위하여」라는 특집으로 이병현의 「여류학자가 되려는 분에게」 외13개 직업 영역이 소개된다. 『여원』 1956.1, 180-203쪽.

24) 박종화, 「특집 우리 문화의 세 단면: 한국의 새 여인상-새로운 현모양처형, 『여원』, 1957.6, 134쪽.

25) 현병진, 「성교육의 실정과 개선의 길, 『여원』 1956.11, 54쪽.

26) 김두현, 「여자대학교육의 당면문제, 『여원』 1959.11. 81쪽.

27) 강신재, 「주부의 인종을 조화로 바꾸자-자유를 유입할 수는 없으나 소화할 수는 있다, 『여원』 1957.10, 90쪽.

28) 여성 독자의 편지글에서 보면, “개성과 상관없이 한 가정의 현모양처로 인정받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고백한다. 「미혼여성에게 보내는 결혼특집, 『여원』 1956.2. 92-139쪽.

29) 정충량은 신문의 <가정란>이 계몽의도에서 탈피하여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충량, 「신문은 여성독자를 경계하고 있다, 『여원』 1957.6, 63-65쪽.

그렇다면 ‘현모양처’의 이념을 그 원동력으로 삼는 주부 담론이 가부장제적 젠더질서를 은폐하기 위해 현모와 양처를 어떻게 구성하고 그것을 주부 담론과 어떤 방식으로 위계화하고 있으며, 현모와 양처는 어떻게 서열화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되는지 그 내적 원리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3. 여성 젠더의 내적원리

3-1. 전인교육의 담당자가 된 위대한 모성

모성(motherhood)은 근대의 창안물로서, 근대 이후 자연적 실재를 벗어나 민족이나 국가의 이름으로 호명되면서 다른 요소와 통합·배제되기도 하는 사회적 실재로 작동된다. 1940년 전후 조선 사회가 “여자 또는 아내에서 어머니의 세대로 이행”³⁰⁾되는 시기라고 한다면, 50년대는 주부로 호명되는 모성이 양처와 마찬가지로 두드러지게 표상되는 시기이다. 이는 1920년대 모성이 양처주의에 부속된 임무였던 것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여준다.³¹⁾

가정주부 자신들이 급변하는 풍조에 맹종하고, 오랜 우리나라 생활을 성에 맞지 않는 외풍에 젖어 몰지각(沒知覺)한 행위를 자행(恣行)함으로써 감염(感染)되기 쉬운 발육기(發育期)의 자녀들의 그릇된 감정을 유발(誘發)케 하여 과오를 조장(助長)케 하고 있는 것은 자녀 교

육에 커다란 맹점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자녀 교육이란 결코 학교에만 의존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보면 가정주부들의 자각과 아울러 재인식을 촉구하고 싶다.³²⁾

이 글에서 주부인 어머니가 자녀 교육의 담당자임을 밝히고 있다. 자유 민주주의 이념에 부응하는 한편 부르주아적 가정을 모델로 하여 자녀 양육과 자녀 교육의 담당자가 어머니로 규정되고 있다. 미국식 의미의 여성교양의 효과는 자녀 양육과 자녀교육에 헌신할 수 있는 지·덕·체를 갖춘 모성상에서 극대화된다.³³⁾ 『여원』에 실린 알린 백크(최민순 역)의 「아내·남편·사내아이·계집아이·가족」(59. 5)이라는 기사글은 외국의 가정을 소개하면서 모성이 작동하는 방식을 잘 보여준다. 이 글은 가족의 배치를 부모와 자식으로 수직적이면서도 수평적으로 위계화 시킨 후, 출산에 “처음부터 끝까지 실제로 종사한 것은 모성 쪽뿐”이며, 어머니가 “가정 속에 그 가족과 함께 있는 것”으로써 가족의 최종적인 위안처이기에, 모성은 위대하다고 예찬하고 있다.

그런데 핵가족을 기반으로 한 이러한 서구적 모성 담론은 아직도 대가족적 구속력이 현실적 힘을 발휘하는 한국 사회에 모델로 작동되면서, 손쉽게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와 결합한다. 이 결합은 곧 가족 내의 내부적 위계화로 이어져, 남/녀, 어머니와 자식 간의 위계화로 구성된다. 박종화는 여성의 호칭을 딸·아내·어머니로 세대별로 구분하여 어머니가 “여성 가치의 완성이며, 하느님이 보내신 사랑”이라고 극찬한다.³⁴⁾ 이

30) 송연옥, 「조선 ‘신여성’의 내셔널리즘과 젠더」, 문옥표 외, 『신여성』, 청년사, 2003, 102쪽.

31) 김수진, 「1920-30년대 신여성담론과 상징의 구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8, 342-354쪽.

32) 한창우, 「대학생과 가정」, 『여원』 1956.1, 29쪽.

33) 당시 여성 필자 중에서 비중 있는 글을 게재하고 있던 정충량은 「남성의 매력을 구성하는 것」(57.11.)에서 남성의 매력이 힘이라면, 여성의 매력은 모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여성성의 핵심은 모성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운 역시 같은 특집란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가장 찬미 받아야 할 존재임을 재차 확인시켜주고 있다.³⁵⁾ 다른 작가의 다른 글에서도 ‘모성 예찬’이 이어지면서 모성은 여성의 최고의 가치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인지하도록 유도한다.

‘위대한 모성’성으로 예찬 받게 된 주부는 자녀 교육의 지·덕·체의 담당자에서 자기를 확인하는 것을 기꺼이 수용한다. 서구 가정의 자녀 교육 모델이 소개되면서도, 주몽의 어머니인 유화부인이나 이율곡의 어머니인 신사임당 등과 같은 한국의 전통적 어머니상이 소개되는 가운데 새로운 어머니상이 창조된다.

『여원』은 모성의 역할로 정서적 자녀 교육 방식뿐만 아니라 제도교육과 관련된 교육방법과 교육시기, 교육내용의 선택자이며 담당자로 규정하고, 그 역할을 표준화하고 규범화하려고 시도한다. 규범화되고 표준화된 모성은 동화 구송자³⁶⁾, 독서교육, 과외지도, 만화나 영화를 보는 아이들의 훈육 등과 같이 교육자의 역할을, 여름철 물놀이, 학교 가기 전에 건강 지도 등 건강 관리사 역할을, 그리고 열등감을 치료하는 심리 치료사³⁷⁾나 성상담자의 역할까지 수행하는 전인교육의 담당자로 규정하고, 모성을 새롭게 구성한다. 1956년 9월부터 「어머니 학교」³⁸⁾라는 고정란이 배치되는데, 이를 통해 모성의 기능을 전문적으로 교육시킨다. 그 외

34) 박종화, 「특집 남성은 이렇게 여성을 찬미한다-여성에게 영광 있으라」, 『여원』 1958.3, 54-57쪽.

35) 이하운, 「현대여성의 일곱 가지 미덕」, 『여원』 1958.3, 62-65쪽.

36) 임인수, 「어머니가 아기에게 읽어주는 페이지-동화 「산속에 오는 봄」」, 『여원』 1958.3, 231쪽.

37) 『여원』 1958년 12월에 실린 「특집: 열등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중 김기숙의 「어린이의 열등감을 어머니가 만든다」를 보면, 어린이의 심리교육도 모성의 역할임을 강조한다.

38) 「어머니 학교」라는 코너는 『여원』에 1956년 9월에 실리고 다시 57년 1월에 실린 후, 63년 1월까지 줄곧 고정란으로 배치되어 있다.

에도 매호마다 어머니와 관련된 기사를 특집³⁹⁾이나 일반 코너, 또는 화보 등으로 신게 되는데, 이 역시 다양한 역할자로서의 모성의 중요성을 강화시킨다.

이러한 배치와 전략은 ‘여성=주부=어머니’로 등치시키는 데 일조한다. 간혹 필자들의 남/녀 젠더적 편차나 개인별 편차가 드러나기도 하지만, 여성의 주체성이나 자아 확장의 욕구에 부응하는 것이 아니라 잡지 기획의 의도대로 기사나 화보를 배치하여 사적영역=주부=모성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한다. 이와 같이 『여원』은 모성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세분화하고 전문화하면서 여성의 자율권을 확장시켜 나간다. 이를 통해 여성은 자기를 확인하고 구성함으로써 사적영역의 자율적인 주체로 자신의 위치를 격상시킨다.

모성의 전문화와 세분화는 이처럼 여성을 사적 영역의 전문가이자 책임 있는 주체로 구성하는 계기가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공적 영역=남성, 사적 영역=여성이라고 성별 위계화를 강화시키고 공사의 영역을 제한하는 성장치로 작동하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예컨대 모윤숙의 경우 딸의 성장과정에서 환희를 느꼈다는 개인적 경험을 통해, ‘모성’을 통해 주부 나아가 여성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있다.⁴⁰⁾ 이는 기꺼이 사적 영역에서 위안감을 일시적으로 느끼는 ‘작가’ 모윤숙의 자기 긍정이며 예찬이다. 그러나 공적 영역으로의 길이 타율적으로 폐쇄된 여성에게 모성은 자기 위안을 주는 수사로 기능한다면, 그것은 공적 영역의 타자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단지 주부를 진정한 모성으로부터 소외시키는 원리로 작용할 뿐이다. 생물학적 모성애를 여성의 자연적인 필요

39) 「자녀교육을 위한 특집」(56.9.), 「특집 젊은 어머니를 위하여」(57.3.), 「딸과 어머니의 대화」(57.8.), 「어머니회상」(58.2-58.5, 60.1.), 「입학기를 치르고 난 어머니님들에게」(59.4.), 「아들딸을 성공시키는 비결」(60.3.-8.)

40) 모윤숙, 「특집 여성의 환희-어머니로서의 여성의 환희」, 『여원』 1956.8, 57-60쪽.

가 아닌 억압적인 목적을 가진 신화, 문화적 구성물로 제한한 결과이다. 이 경우, 자녀를 잉태하고 양육하려는 여성의 욕망이 가정이나 아이들을 진정으로 좋아해서 보살피는 것이라기보다는 자아 확장 욕구가 폐쇄된 상황에서 가사일과 모성애로 강제적으로 ‘전이’ 된 결과이다. 이처럼 성별화된 보살핌의 가치가 가부장제의 규율질서를 내면화한 것이라면 여성의 자기 희생을 강요하는 왜곡된 도덕의식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여원』에 실린 모성 담론은 이것을 은폐한 채, 모성을 통해 여성이 자긍심을 가지면서 사적 영역의 주체로 자기를 확인하는 것에만 의미를 두고 있다. 즉 ‘자유’라는 이념에 따라 사적 영역에서의 모성의 ‘자율권’이 확장된 것을 현시화하는 대신, 국가/남성의 타자로 여성이 재편되고 있음은 은폐하고 있다. 따라서 모성담론은 여성잡지라는 대중적 매체를 통해, 미국을 모델로 한 새로운 교육에서 요구되는 자발성의 강조가 아이들을 태만하게 한다는 등⁴¹⁾ 서구적 가정교육 모델과 한국 가정교육의 균열만 드러낸 채 ‘위대한 모성’으로 주부 담론을 구성해 간다.⁴²⁾

3-2. ‘능부’와 섹슈얼리티의 재현자로서 양처

『여원』에서 양처의 기능은 모성만큼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56

41) 이수남 담당, 「어머니학교」, 『여원』 1958.6, 322쪽.

42) 이 시기에 모성을 보다 안전하고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산아제한이 조심스럽게 논의되기 시작한다. 일정한 흐름을 유지하지 못하지만, 산아제한은 다산의 공포에 휩싸여 있는 여성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이기도 한다. 이예행은 「산아제한 찬부토론-사회적 견지에서 찬성론」(56.2)에서, “여자는 생산하는 기구와 같은 관념이 없어진 오늘날 참다운 인생을 영위하고 참된 모성으로서의 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다산만이 결혼 생활의 목표는 아니다.”라고 말한다. 그의 이숙종의 「사회학적 견지에서 반대론」(56.2), 「피임에 대한 우리의 실정과 선후책」(58.5), 좌담회 「현대부부는 무엇을 요구하는가」(59.10) 등.

년 10월 개설된 고정 코너인 「레이디스 스퀘어」를 보면, 양처의 역할을 편지, 위생, 호소, 영화, 음악, 미술, 취미, 유행, 화장, 요리, 가사, 양재 등으로 항목화하여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1957년 3월 특집인 「새로운 주부수첩」 역시 이와 유사한 항목들을 제시하고 있다.⁴³⁾ 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만 하는 것이 50년대 양처의 위치였다. 이 때 남편의 보필자적 위치로서 남편의 짜증까지도 용납하는 정숙한 아내, 현대적 교양과 지식을 지닌 여성 등의 조건을 골고루 갖춘 데다가 가정의 경제 담당자로서의 조건을 함께 갖춘 ‘능부’가 양처의 이상적인 상으로 제시된다.

남자들은 여성이 가정에 들어앉아서 자녀 교육이나 하고 가정생활에 모든 시간을 소비하는 것을 원했으며 여성 스스로도 집안일에 비중을 들였기 때문에 여성은 퇴보하는 것이다. 근래에는 현모양처가 이상적인 여성상에 대한 인식에서 벗어나 현모양처와 능부로 바뀌었다.⁴⁴⁾

“여성들만은 이수라장 같은 속에서 집안을 유지해야 하고 가게를 세워야 하고 자녀를 가르”치면서 가정을 유지하고, “이제는 웬만큼, 똑똑지 못한 남성은 여인의 손에서 얻어먹고 살게 되었다. 정히 「여인천하」의 감이 있다.”⁴⁵⁾고 박종화가 서술할 정도로 일시적일지라도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자유로웠고, 사회적 지위가 격상되었던 당시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여 능부가 요구된 것이다. 인용문을 보면 ‘근래에는… 현모양처와

43) 「의식주 생활의 재검토」(56.10)라는 특집으로 마해송의 「여성의 비극」, 천관우의 「우리 의식주의 모순」, 표경조의 「우선 고쳐야 할 몇 가지」, 정충량의 「생활양식의 새로운 설계」 등이 게재.

44) 「좌담회2: 직장여성의 불만」, 『여원』 1957.3, 68-71쪽.

45) 박종화, 「해방 후의 한국여성」, 『여원』 1959.8, 73쪽.

능부로 바뀌었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는 “기혼 여성도 얼마든지 그들의 능력에 따라 활발히 일할 수 있을 뿐더러 오히려 그것은 한 사회인으로서 의무”⁴⁶⁾라고 여성의 사회적 활동을 범박하게 서술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여원』에서 언급하고 있는 능부는 사회적 활동, 요부, 내조로 표상되기 때문이다.

여성의 사회적 활동은 이전 시기에 비해서 활발해졌으나, 직장여성과 관련된 담론에서 보듯이 결혼 전에는 주부 수련장, 결혼 후에는 가정 경제의 보조적 수단으로서만 의미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 시기와 별다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나 섹슈얼리티도 능부의 조건으로 인식된다는 점이 이전 시기의 양치론의 성격과 확연히 구별되는 점이다. 따라서 ‘성의 발견’ 등 섹슈얼리티에 대해서 『여원』은 자주 그리고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⁴⁷⁾ 미국 가정의 적나라한 성생활을 공개한 킨제이 보고서는 성을 담론화하는 것을 금기시했던 한국적 관습을 와해시키는 외부적 계기가 된다.⁴⁸⁾ 전쟁 이후 성문화가 개방적으로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성담론은 금기시되었으며 성적 충동이나 성행위의 결정권은 모두 남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여원』은 여성도 성적 충동을 느끼기도 하고 성적 결정권을 가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⁴⁹⁾ 예컨대 장경학은 여성의 성이 모성에서 벗어나

순수히 여성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하는 진통기에 와 있다고 하면서 여성이 인간으로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성적 자유를 구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⁵⁰⁾ 즉 여성을 모성이나 현모가 아니라, 성적 주체로서의 여성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⁵¹⁾ 이 시기 게재된 강신재의 단편소설 「향연의 기록」에서 ‘나’의 언니는 자신이 선택한 사람에서 “무한한 만족을 느끼는”⁵²⁾ 여성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김말봉의 「사랑의 비중」(56.5.)에서 여주인공도 결혼상대자를 선택할 권리가 여성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것도 이 시대 성의식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5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성적 결정권을 가진 남성들이 주부에게 요부가 되라는 불평등한 요구를 하기 시작한다. 이 시기 『여원』을 보면, 여성에게 「여성의 섹시한 매력과 애교」(60.3.)를, ‘주부’의 위치로 돌아가 남편을 이해하고 사랑하기를 촉구하는 글들이 자주 발견된다.⁵³⁾ 그 결과 남성은 아내에게 “정숙한 아내”와 더불어, “새로운 감각과 매력”, “화장에 관심이 있고 요부다운 아내”를 제시하고 있다.⁵⁴⁾ 정비석 역시 부부의 성행위는 자식을 낳기 위한 것이며 남편에 대한 의무임을 전제하면서도 남편의 쾌락을 위하여 “아내여 남편을 유혹하라”고 ‘요구’하고 있다.⁵⁵⁾ 이들 남성 쟁터들에 의한 요부에 대한 요구는 여성의 몸을

46) 김희수, 「근로에서도 남녀동등을 찾자」, 『여원』 1959.1, 97쪽.

47) 「특집 성의 발견」(56.6.)으로 장문경의 「여성의 성욕」 외 4편, 김남조의 「연인·아내로서의 여성의 환희」(56.7) 등,

48) 「특집 성과 교육」(56.11)으로 윤태림의 「「킨제이」가 남기고 간 것」 외에 9편이 게재됨. 이 특집에는 부부간의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밝힌 미국의 「킨제이 보고서」를 소개하고, 성행위에서 남녀평등권을 주장하는 진보적 성향의 글이 있다.

49) 정연희의 『목마른 나무들』(『여원』에 1961년 11월부터 1963년 4월까지 연재, 1963년에 여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간)에서 주인공은 스스로 ‘아프레’ 걸임을 자처하면서 성적 결정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등 새로운 여성상을 보여 준다. 김현주, 「‘아프레 걸’의 주체화 방식과 멜로드라마적 상상력의 구조-정연

희의 『목마른 나무들』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21권, 2006, 315-335쪽.

50) 「특집 성의 발견」 중 장경학, 「한국 여성과 성-3단계의 발전」, 『여원』 1958.6, 117-120쪽.

51) 「특집 성의 발견」 중 유스테쓰 체쎄, 「완전한 성과 사랑의 결합-건전한 성생활을 위하여」, 『여원』 1958.6, 134-142쪽.

52) 강신재, 「향연의 기록」, 『여원』 1955.10, 124쪽.

53) 김남중, 「공처가: 아내는 주부의 위치로 돌아가야 한다」, 『여원』 1959.4, 100쪽.

54) 정비석, 「여성의 생활각서 제 6화-아내에게 요구하는 것」, 『여원』 1958.3, 240-243쪽.

55) 정비석, 「특집: 현대 부부론-현대 부부 섹스론」, 『여원』 1959.10, 100-105쪽.

기교와 훈육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여성들의 성적 권리를 배제시키는 논리를 근거에 깔고 있다. 이처럼 가부장제하에서 섹슈얼리티는 생체 권력 속에서 생산되고 구성되는 것이므로 권력이 작동된다. 따라서 섹슈얼리티를 실천하는 여성의 몸은 가부장제의 권력이 각인되는 장이자 가부장제의 권력관계를 재생산하는 곳이 된다. 따라서 5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성적 권리를 구체화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남성이 된다. 그러다보니 간통을 행한 남성이 아내를 간통으로 고소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마저 벌어지게 된다. 이 사건에 대해 남성 젠더의 경우 집안일이니 제삼자가 개입하지 말자는 입장이었지만, 박화성은 아들과 며느리마저 어머니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사태에 주목하면서 남성 위주의 판단보다는 공정한 관찰과 판단이 요구된다고 여성 옹호론을 펴기도 한다.⁵⁶⁾

내조 역시 50년대 후반 들면서 주부로서의 의무로 강하게 언술되기 시작한다. 이때 『여원』은 내조의 상을 한국과 서구의 전통을 통해 구현해 내기도 하고⁵⁷⁾ 실업가의 아내에게서 “부단한 노력과 절제의 생활”이라는 실제적인 내조의 규범을 세부적으로 제시하기도 한다.⁵⁸⁾ 내조가 자신과 타인의 인격을 모두 존중하는 윤리의 공존의식을 지닐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하면서도,⁵⁹⁾ 그 궁극적인 목표는 남편을 사회적으로 출세시키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희승의 「여자의 주변-여자의 행복」(58.10.)에서는 가산 형성과 취미 생활뿐만 아니라 인내나 자기 수양 등 정서적 위안 자료로서의 주부의 역할이 내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내조는 남성의

보필적 위치에서만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내조로 호명된 양치는 결과적으로 가부장제 젠더 관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다.

내조, 요부 등으로 표상되는 능부는 가부장제를 은폐시키는 기호로 작동된다. 이와 달리 양치 논의의 변이는 여성이 가부장제 질서에 급속하게 재편되는 과정이며 그것을 재생산한 결과라는 비동일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3-3. 가정의 신성화(domesticity)와 배타적 위계화

현모와 양치 이념은 ‘제도로서 주부’를 구축하는 원동력으로 작동하면서, 그것은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실체가 된다. 즉 ‘제도로서의 주부’가 구심력을 갖기 위해 가정의 신성화가 기획된다. 이 기획은 여성을 사회적 역할로부터의 단절을 체계화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가정 내에서의 주부의 지위를 확보하는 이중의 의미를 낳는다. 즉 “‘여성=가정/남성=사회’의 성별 분업을 공고화하며 여성의 가정 역할을 신성화”하는데, 이때 “가정과 사회의 철저한 분리를”⁶⁰⁾ 필요로 한다. 이에 따라 현모양치 이념은 여성의 도덕적 의무가 된다. 동시에 가정은 경제적·정치적·정서적 생활의 중심이 되고, 경제적인 안정과 도덕적 규범이 보장되고 가족 간의 상호 소통이 원활한 공간으로 여겨진다. 심지어 「한국의 가정」(56.12.)이란 글에서는 한국 사회가 가부장적 권한에 절대 복종해야 하고 남편의 축첩 행위가 행해져도 주부로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가정의 신성화를 공고화하기 위해 인내를 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여성이 가정의 신성화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배타적 위계화가 체계적으로 시도된다. 이 위계화는

56) 김은우, 「오영재 씨 고소 사건과 나의 생각-내외 싸움은 개도 안먹는다」, 『여원』 1959.9, 116-120쪽.; 박화성, 「오영재 씨 고소 사건과 나의 생각-「이브」는 통곡한다」, 『여원』, 1959.9, 112-115쪽.

57) 「특집 내조법 입문」, 『여원』 1959.12, 216-245쪽.

58) 「실업가 부인의 생활을 말하는 좌담회」, 『여원』 1957.5, 88쪽.

59) 「여성의 인격은 인정되어 왔는가」, 『여원』 1957.5, 77-79쪽.

60) 김혜경, 『식민지하 근대가족의 형성과 젠더』, 창비, 2006, 85쪽.

직장여성, 아프레게르, 윤락여성, 전쟁미망인, 식모, 여차장 등에 대한 통합과 배제를 통해 진행된다.

50년대는 전쟁으로 인한 전쟁미망인의 수가 증가하고, 사회적 출구를 발견한 여성이 여대생이라는 집단을 형성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여원』에서 자주 거론된다. 전쟁 이후, 절대 다수가 경제적 어려움과 다수의 부양가족으로 인해 재가가 힘든 상황에 놓인 절대 다수의 전쟁미망인을 문제화하지만, 그들의 문제는 현모양처 이념의 시각에서만 조명된다.⁶¹⁾ 그들은 오직 ‘모성’을 위해 개인적 욕구를 희생해야 하는 존재로만 대상화될 뿐이다.⁶²⁾ 게다가 모성을 포기하고 재혼한 여성이나 생계유지를 위해 경제적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미망인들은 문란한 여성으로 치부하여 그들을 사회로부터 타자화시키려고 한다.⁶³⁾ 이러한 전쟁미망인의 어려움은 박화성의 「바람뉘」(58.4.-59.3.연재)에서도 잘 묘사되어 있다. 이 소설의 주인공 장윤희는 전쟁미망인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첫사랑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굳건하게 수호한다는 점에서 『여원』에서 다루어진 전쟁미망인 담론과 유사성을 띤다. 그리고 직장여성이 주부일 경우, 「좌담회3-가정주부는 피로하다」(57.3.)나 「내가 그림을 그리는 의미」(59.5)를 보면 가정과 직장이 양

61) 여원편집부, 「통계중심 미망인들의 형편과 동향」, 『여원』 1959.6, 161쪽.
62) 장덕조는 자녀가 있는 미망인의 개인적 욕구는 ‘모성 보호’와 ‘모권 확립’을 위해서 희생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장덕조, 「특집: 미망인은 고민한다-미망인의 연애문제」, 『여원』, 1956.3. 115-119쪽.) 한편 『여원』에는 「특집 6·25 미망인의 형편과 살 길」(59.6) 등에서 미망인들의 형편과 동향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이처럼 전쟁 미망인 문제는 개인의 의지만으로 간단하게 설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들의 수는 전체 여성의 약10%에 달했으며, 평균3인 이상의 자녀를 두었으며, 70% 이상이 하층계층의 여성으로 부양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재가마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임하, 「한국전쟁이 여성생활에 미친 영향-1950년대 “전쟁미망인”의 삶을 중심으로」, 『역사연구』 8권, 2000, 14-19쪽.
63) 정충량, 「미망인의 유혹, 재가, 딸린 아이」, 『여원』 1959.6, 171쪽.

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민으로 토로한다. 그러나 이 심각한 고민은 여성이 사적 영역의 충실한 담당자가 되어야 한다는 현모양처 이념으로 간단히 해결된다.

이들 전쟁미망인과 직장여성, 여대생은 궁극적으로 현모양처 이념으로 수렴되지만, 이에 비해 계 마담, 댄스홀 출입여성, 아프레 걸은 배제의 대상이 된다. 근대적 은행이 정착되지 않은 시절에, 여성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계는 ‘마담뱅크’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가정 경제의 유일한 물적 토대가 된다.⁶⁴⁾ 그러나 은행이 정착되기 시작하고, 가정으로 귀환하라는 귀환명령이 가해지는 가운데 계를 하는 여성은 질타의 대상이 된다. 즉 현명한 가계 소비를 꾸릴 수 없는 경제의 대상이 된다.⁶⁵⁾ 또한 정비석의 『자유부인』이 발표된 이후 계와 더불어 댄스홀에 출입하는 여성이나⁶⁶⁾ 아프레 걸⁶⁷⁾은 가정 비극을 불러일으키는 방종한 여성으로 간주된다. 특히 아프레걸은 부도덕한 육체 해방파,⁶⁸⁾ 바지를 입는 여성,⁶⁹⁾ 일부 방종한 여대생⁷⁰⁾으로 기표화되면서 비판의 대상이 된다.⁷¹⁾

64) 「르뽀르파이아주: 돈놀이하는 마담들」(60.8.), 「계 이야기: 더 효과적인 이용을 위하여」(59.6) 등,
65) 「주부의 현명한 가계」, 『여원』 1957.3.
66) 임옥인, 「특집 남성의 매력-남성미의 변천」(57.11.); 박순천, 「가정평화를 탐색하는 특집-아직도 희미한 가정의 민주주의: 여성의 허영은 가정의 행복을 파괴한다」(57.10.)
67) 아프레 걸은 전후파를 의미하는 프랑스어 아프레게르(apres-guerre)에서 파생된 말로 기성가치관으로부터 자유로운 ‘전후파 여성’을 의미한다. 김현주, 「‘아프레 걸’의 주제화 방식과 멜로드라마적 상상력의 구조-정연희의 『목마른 나무들』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21권, 2006, 1쪽.
68) 광종원, 「새 세대를 위한 일곱가지 문답-명랑 활발을 아프레와 혼동하고 있지 않은가」(56.10.); 좌담회 「새로운 세대를 위한 윤리와 생리의 대화」(57.4.); 최정희, 「어느 여대생의 이야기-지성을 갖추자」(57.4.); 조연현, 「해방 후: 윤리적 기초의 연애」(57.4.) 등. 『여원』 외에도 「한국매춘문제」(이혜복, 『여성계』 1958.3.), 「아프레게르와 처녀성」(조풍연, 『주부생활』 1959.4.) 등이 50년대 잡지에서 발견된다.

이러한 여성에 대한 도덕적 판단은 『여원』에 게재된 허남이의 단편소설 「신록」(58.7.)을 보면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 소설에서 파티와 계 등으로 정신이 팔린 어머니가 아들의 자모회에 참석했다가 망신을 당한다는 내용이 교훈적 태도로 그려진다. 또한 강신제의 소설 「표선생수난기」(57.3.)에서 묘사되는 표선생의 부인 역시 화장이나 웃음 등으로 요란스럽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남편을 무시하고 있으므로, 자유부인과 유사한 여성으로 간주되면서 부정된다.

또한 식모나 윤락여성들 역시 『여원』의 주부 담론에서는 타자화된다.⁷²⁾ 식모를 현실적 필요성 때문에 용인하고 있지만 현모양처 이념을 약화시키는 존재로 간주하고 있으며, 그 밖의 하층 여성이나 윤락여성 역시 ‘뒷골목’에 거주하는 존재로 주변화시켜 버린다.⁷³⁾

이러한 배타적 위계화에 따라 가정의 신성화는 유지된다. 더욱이 가

-
- 69) 석우선, 「바지를 입는 여성들이 늘어간다-남녀동권의 심볼로 볼 수도 있는가」, 『여원』 1958.2, 258쪽.
- 70) 김정미의 「현재를 충실하게 사는 것 뿐」(58.2.), 최정희의 「어느 여대생 이야기-지성을 갖추자」(57.4.), 「여대생의 생리」(57.4.)
- 71) 「이혼을 결심하기 전에 잠깐만-사건 당사자들에 대한 법관의 개인적 충고」(58.3.), 조경희의 「자유부인은 남편이 만든다」(58.9.), 「새로운 세대를 위한 윤리와 생리의 대화」(57.4.), 「남자의 마음-저항정신은 빛나건만」(58.3.) 등.
- 72) 「좌담회 ‘식모’: 생활개선을 위한 주부들의 공동연구」(58.8.)에서는 식모의 인권에 대한 고려와 식모조합의 필요성, 그리고 식모를 쓰지 않기 위한 생활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73) 이 글은 뒷골목 여인들, 즉 식모, 양공주, 접대부의 생태를 조사한 글로서, 해방과 전쟁 이후, 미군정기에 카페와 나이트 클럽, 댄스홀이 대량 양산되면서 확산된 퇴폐문화의 현장 조사에 머무른다. 이러한 논조는 결국 ‘뒷골목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인권이나 그들의 역사·사회적 맥락을 감각적으로만 소비하게 하게 하여 오히려 그들을 타자화시킨다. 「뒷골목 여인들의 生活 街道」, 1956.1, 224-238쪽. 「매춘(사창)의 실태」(59.12.)와 「사창은 불사조처럼」(59.6.)에서도 선정적인 표제처럼 사창 여성들의 인권이 감각적으로 소비될 뿐이다. 「공장의 울 밑에선 청춘」(59.12), 「방직공장여성들의 생활」(57.12.)에서는 여성 노동자를 다루고 있지만 그들의 삶을 대상화하고 있을 뿐이다.

정의 신성화가 유지됨에 따라 공적 영역에서 여성의 역할은 축소되는 반면 도리어 사적 영역에서 여성의 자율권은 확장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전개된다. 이처럼 『여원』의 주부 담론은 분명 서구적 부르주아적 가정을 욕망하고 선망하는 특수한 것이지만, 바로 이 선망의 욕망 때문에 가부장제의 순치된 욕망으로, 그리고 여성 일반의 보편적 담론으로 작동하게 된다.⁷⁴⁾ 예컨대 『여원』에 소개된 의복과 요리법이 실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독자의 항변에 실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는 편집부의 답변이나⁷⁵⁾, 『여원』의 기사 내용이 “생활에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독자의 말이나,⁷⁶⁾ 가정 형편이 어려워 『여원』을 대본소에 넘기면서도 “읽음으로써 내 인생에 무엇인가 보탬이”⁷⁷⁾ 되었다는 독자의 고백 등에서 주부담론이 당대 여성의 보편적 담론으로 작동되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다. 결국 1950년대 주부 담론은 담론의 매체가 대중잡지이기에 비동일성과 비신빙성이 존재하게 되고, 사적영역에서 여성의 자율권을 확장시키는 담론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그것을 규제하고 지배하는 담론이기도 하다.⁷⁸⁾

4. 결론

-
- 74) 『여원 상담실』이나 『독자수기』에서 하류층 여성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발견할 수 있다. 이는 그들의 삶을 개선할 방안을 『여원』이 모색해 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있었다는 증거이다. 또한 『여원』의 주부담론이 성별과 계층을 초월한 보편적인 담론이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는 근거이다.
- 75) 「독자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이 豪華스러운가」, 『여원』 1959.4, 356쪽.
- 76) 임선희, 「감상에 젖고 낭만을 맛보게」, 『여원』 1959, 4, 57쪽.
- 77) 이희라, 「남의 손에 넘어간 『여원』」, 『여원』 1959.6, 57쪽.
- 78) 크리스테바는 하나의 텍스트 속에 많은 위험이 존재하여, 사람을 지배하므로, 독자들은 텍스트의 위해성을 파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한다. 노엘 맥아피, 이부순 옮김, 『경계에 선 줄리아 크리스테바』, 엘피, 2007, 59쪽.

이 글에서는 1950년대 여성잡지 『여원』을 중심으로 ‘제도로서의 주부’의 형성과정과 그 이데올로기로서 작동되는 현모양처 이념을 살펴본다. 자유 민주주의 이념에 부응하여, 현모양처 이념이 가족을 재편성하고 가부장적 젠더 관계를 재구축하고 재생산하고 있음도 고찰하였다. 이 과정에서 50년대 모성 담론이 이전 시기와 달리 사적 영역으로 분화된 ‘제도로서의 주부’라는 토대 위에 위대한 모성을 재탄생시켰다는 사실도 규명하였다. 또한 이 시기 양처론은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지적 수준을 가진 존재, 합리적인 가정 관리자, 성적 쾌락의 대상으로서 호응을 할 수 있는 ‘능부’로서의 여성을 요구한다는 사실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처럼 50년대 주부는 가족 구성원들의 욕구에 부응하여 육체적·심리적·정서적인 역할 외에 경제적·성적 역할까지 담당해야 했다. 즉 주부의 보살핌의 영역은 다양하면서도 전면적이며 세심한 영역까지 확장되었다.

한편 주부 담론은 현모양처 이념에 귀속되지 않는 부류들을 배타적으로 위계화하면서 공고화되고 가정의 신성화는 수립된다. 가정의 신성화가 수립되면서 사적 영역에서 여성의 자율적 권한은 확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여성은 사회적 묵인과 사회적 강요 또는 개인적 동조와 강요된 선택에 의해서라고는 하지만, 사적 영역의 주관자이자 책임자로 스스로를 구성해 갈 수 있게 되었다. 이때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에서 그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자율적 주체로서 주부가 호명된다. 주부는 국가, 사회, 성에 의해서 위계화·서열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50년대 한국 사회에 제도로서 탄생·정착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남성의 ‘가장(家長)’으로서의 권위가 가부장적 규율관행으로 작동되는 가운데, 여성은 자신이 사적 영역의 중심 관리자라는 의식을 갖으면서도 한편으로 ‘가장’인 남성의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젠더화된 몸이 된다. 이와 같이 1950년대

주부 담론은 젠더 관계를 재구축하면서 여성잡지 등 다양한 대중매체에 의한 상호텍스트성에 의해 재생산되고 성별과 계급을 초월하여 광범위하게 확산된다. 이 효과는 성별이나 계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겠지만, 제도로서의 주부는 중산층의 이상적인 주부가 되고자 한 여성들의 열망을 가부장제에 순치된 욕망으로 한국사회에 정착된다.

한국사회에서 50년대 중반은 일상으로 귀환한 남성이 공적 영역에서 여성을 추방하는 한편 사회적 출세와 경제적 부에 대한 강렬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던 시기이다. 역으로 보면 남성의 위치가 불안정한 시기였기 때문에, 남성이 사적 영역에서 여성의 자율적 권한을 기꺼이 승인한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5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사적 영역에서 자율권을 행사하는 여성의 권리에 대해서 관섭하고 통제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러한 관섭과 통제는 사적 영역에서 여성의 자율적 권한을 협소화하려는 징후(symptom)로 나타난다. 협소화의 징후는 낭만적 사랑과 매춘, 공과 사, 그리고 계층의 분화를 거치면서 더욱 노골화된다. 이러한 징후는 50년대 후반 들어 모성과 섹슈얼리티, 그리고 내조와 관련된 담론들의 변화된 논조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징후는 1950년 주부담론에서는 징후로만 존재한다. 50년대 주부 담론은 오히려 사적 영역에서 여성의 자율권을 확장시켰으며 여성을 감성의 영역으로 한정하거나 남성의 보조자 역할로 축소시키지 않았다는 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 가와모토 아야, 「조선과 일본에서의 현모양처 사상에 관한 비교연구: 개화기로부터 1940년대 전반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9. 2.
- 강소연, 「1950년대 여성잡지에 표상된 미국문화와 여성담론」, 『상허학보』 18집, 2006.10, 107-136쪽.
- 김복순, 「근대초기 모성담론의 형성과 젠더화 전략」,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4집, 2007.6, 5-51쪽.
- 김선남, 「한국 여성잡지에 나타난 여성상 연구」, 『출판학연구』 36호, 1994.12, 55-80쪽.
- 김수진, 「1920-30년대 신여성담론과 상징의 구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8.
- 이연정, 「모성론에 관한 비판적 고찰」, 서울대 석사논문, 1994.
- 장미경, 「1960~70년대 가정주부(아내)의 형성과 젠더정치: 『여원』, 『주부생활』 잡지 담론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15권 1호, 2007, 142-182쪽.
- 한희정, 「한국 여성 잡지의 모성담론 분석」, 『언론과학연구』 2권 1호, 2002.4, 231-273쪽.
- 김현주, 『대중소설의 문화론적 접근』, 한국학술정보, 2005.
- 김혜경, 『식민지하 근대가족의 형성과 젠더』, 창비, 2006.
- 조은·이정옥·조주현, 『근대가족의 변모와 여성문제』,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 사라 러딕, 이해정 옮김, 『모성적 사유』, 철학과 현실사, 2002.
- 새리 엘 서러, 박미경 옮김, 『어머니의 신화』, 까치, 1995.
- 필립 아리에스, 문지영 옮김, 『아동의 탄생』, 새물결, 2003.

Abstract

Women's Magazine *Yeowon* in the 1950s and the Birth of 'Housewife as an Institution'

Kim, Hyun-Ju

While focusing on *Yeowon*, a women's mass-magazine in the 1950s, this paper is aimed at examining the formation process of the "housewife as an institution" and the significance of the "hyeonmo-yangcheo" (a wise mother and good wife) ideology backing up the system. The study found that the hyeonmo-yangcheo ideology in the 1950s was remade according to the anew idea of Liberal Democracy and was playing a role in reorganizing disbanded families and reestablishing and reproducing the gender relations of the society. In other words, the discourse about the maternity, which served as one of the internal principles that enabled the hyeonmo-yangcheo ideology to work, was constituting the "great maternity" with knowledge, virtue and health along with the birth of the "housewife as an institution" based on the private area. And the discourse about the good wife, which was the other internal principle, was demanding that the women of the era become "competent wives" who is intellectual enough to fulfill social activities and at the same time manage the household reasonably and serve as the object of sexual pleasure in bed. On the other hand, the magazine firmed up the discourses about the housewives by excluding those who do not belong to the hyeonmo-yangcheo ideology in the hierarchical order. So it was

establishing the sanctification of the family and trying to expand the autonomous rights of women.

This housewife discourse came under intervention and control in the late 1950s. This intervention and control was going on in the direction of gradually limiting the autonomous rights of women in the private area. But it means that women's roles in the discourse about housewife in the 1950s kept expanding the autonomous rights of women and were not confined to the area of emotion or the supporter of men.

Key Words

women's magazine, *Yeowon*, housewife as an institution, "hyeonmo-yangcheo" (a wise mother and good wife), maternity, good wife, private area

* 위 논문은 2007년 11월 3일에 투고되어, 11월 21일 심사 완료 후, 11월 23일 게재가 확정되었음.